

[종합]

수능 11월 13일 실시

국사에 근현대사 포함 ... 9월 1일~17일 원서접수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3일 실시되고 지난해와 달리 성적표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또 사화합국 국사과목의 출제범위에 한국 근현대사 부분이 포함되며 시험특별관리대상자 가운데 맏인, 약시 및 뇌성마비 수험생의 시험시간이 연장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09학년도 수능시험 계획서를 7일자로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11월13일 실시될 올해 수능시험이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달라지는 것은 우선 등급만 표기했던 성적 표기방식이 올해부터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표기로 바뀐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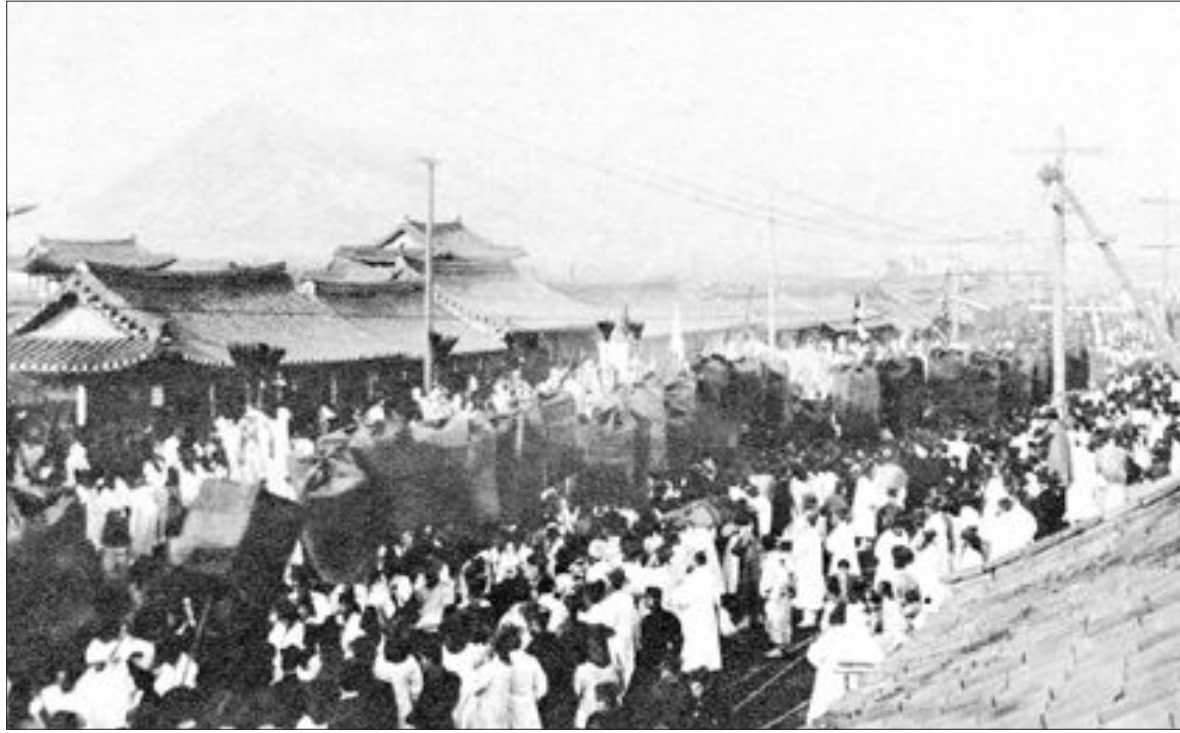
사화합국영역 국사과목의 출제범위에 근·현대사 내용이 포함되는 것도 달라지는 부분이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도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맏고시 맏인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시간을 17배, 약시 및 뇌성마비 수험생에게는 1.5배를 더 주기로 했다.

나머지 사항들은 지난해 수능과 동일하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은 78개 시험지구별로 9월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졸업 예정자는 재학생인 고등학교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현 주소지 관할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원서를 내면 된다.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가 시험지구가 다른 주소지로 이전된 경우 현 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도 원서를 낼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인 직접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수험자, 군복무자, 입원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리 제출할 수 있다. 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진(가로 3.5cm, 세로 4.5cm)이어야 하고 모자나 짙은 안경을 착용한 채 촬영해선 안된다.

원서를 접수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응시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는다.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고 성적은 12월10일까지 통지된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수능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평가를 9월 4일 실시할 예정이다.



흥선대원군 장례식

고종의 생부인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장례식 장면을 담은 사진이 처음으로 발굴됐다. 사진은 마이니치신문사에서 1978년 7월에 발간한 '일본식민지사 1, 조선(朝鮮)'이란 책자에 수록돼 있다. 윤현궁으로 보이는 건물은 중심으로 수많은 조문객이 등장하고 뒤로는 북악산이 보인다.

고종의 생부인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장례식 장면을 담은 사진이 처음으로 발굴됐다. 사진은 마이니치신문사에서 1978년 7월에 발간한 '일본식민지사 1, 조선(朝鮮)'이란 책자에 수록돼 있다. 윤현궁으로 보이는 건물은 중심으로 수많은 조문객이 등장하고 뒤로는 북악산이 보인다.

“경제난·국론분열 해결대책 세워라”

16개 시·도지사 협성명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경제 위기 심화, 쇠고기 추가 협상에 따른 국론분열 등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7일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각 시·도 단체장과 원내총무,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시·도지사 협의회'를 갖는다. 이 자리는 단체장들이 경제난 심화, 국론분열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하다는 뜻을 같이해 마련됐다. 단체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채택, 정부와 정치권에 경제위기 극복과 국론분열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 '생존 투쟁' 본격화

전남 농민연대 농자재값 지원책 요구 ... 농기계 반환·출하 거부 움직임

치솟는 비료·사료값 등 농자재 가격인상에 대한 대책요구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농기계 반환에 이어 농산물 출하 거부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갈 태세여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농민연대 회원 70여명은 지난 5일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자재 가격인상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 마련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 13대를 반환하고, 전남도에 ▲국제 곡물가 폭등에 따른 친환경 농업정책 등 근본적인 변화 ▲안전 먹거리의 안정공급 체계 확립 ▲농민 생존대책 등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특히 최근 종류별로 지난해보다 적은 80%에서 많게는 100% 넘게 오

른 비료값과 관련, 이들은 “정부가 비료보조금을 폐지한 대신 올 말까지 300억원의 한시적인 보조금을 마련했는데 이를 정상적으로 부활시켜 농가의 위기를 덜어주고 국제 곡물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연대는 이날 '농기계 반환투쟁'에 이어 오는 9일 전국 각 시·군에서 농기계 반환 집회를 갖고 일선 지자체 청사 주변이나 도로에 트랙터 등을 세워놓는 농기계 반환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쌀 등 농산물 출하 거부 투쟁을 결의한 뒤 이달 말께부터 구체적인 행동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회는 각종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하는 점을 감안, 농민들에게 정부의 공공비축미수매 등을 거부하자고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석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정부가 폭등하는 농자재 가격 등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농민들은 손해를 보면서 각종 농산물을 출하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농산물 생산에 일정부분을 보조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도군 등 4개 수협 고객재산 100% 안전”

수협중앙회 밝혀

수협중앙회는 6일 “완도군 수협 등 전남지역 4개 수협에 대한 계약 이전 및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방

침에 대해 일부에서 퇴출이나 파산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과정으로 고객들의 재산은 법에 따라 100% 보호된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또 “완도군 수협의 경우 구조조정 방안으로 계약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완도군 수협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 부채 부분에 대해 자금을 일시에 지원 인건 수협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듯 바뀐 짝 조합원들의 피해는 최소화되고 고객들의 재산 피해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수협은 또 “완도군 수협 이외의 전남지역 3개 수협도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고객 계약금 등 재산 피해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수협 이종호 기금관리팀장은 “전남지역 일부 수협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마치 ‘퇴출이나 파산’으로 오해하며 재산상의 피해를 우려하는 고객들이 있다”며 “계약 이전과 구조조정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고객들의 재산은 100% 보호되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tuim@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세비 아깝단 생각밖에 안된다

모든 식당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이번주부터 ... 단속은 10월부터

이번주부터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는 모든 종류의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영세 상인들의 반발 등을 우려, 3개월 뒤인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당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신고 보상금은 '허위표시'의 경우에만 지급된다. <관련기사 8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일 관보에 실려 발효될 예정이

라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식당·뷔페·예약점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점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모두 소·돼지·닭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의 경우 시행령 발효와 동시에, 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12월말께부터 새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적용된다. <연필뉴스>

美쇠고기 30개월 미만 보증

QSA 프로그램 시행 착수

4주 후부터 한국 도착

미 정부가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 30개월 미만임을 보증하는 품질보증 프로그램(QSA) 프로그램을 시행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보증한 쇠고기가 4주후에 한국에 처음으로 도착할 전망이다. 위싱턴 통상 관련 소식통은 5일(현지 시각) “한미 양국간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합의한대로 미 농림부가 지난 26일 ‘한국을 위한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미만 검증 QSA 프로그램’

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초부터 시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농무부는 지난날 30일까지 미국의 도축장들에게 한국 QSA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행할 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최근 각 시설들에 대한 QSA 승인 여부를 결정했으며 조만간 해당 도축장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미 농무부는 현재 홈페이지에 ‘한국 QSA 프로그램에 의한 공식 승인시설 리스트’라는 창을 개설해 놓았지만 시설명을 구체적으로 게시하지는 않았다. <연필뉴스>

여수 화양지구

남도 투자최적지

- (현)수산지원보호구역이나 2008년 내에 용도변경 현재용도변경용역중 (돌산청사 관공개발과)
- 2008년말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및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화양면과 남도의 연육교는 현재 기본 설계비 20억 배정 (익산국토관리청)
- 사도는 보존하고 남도는 개발(관광과)
- 통일교 (주)일상에서 화양지구(남도 포함)를 2015년 완공목표로 1조5천억원 투자개발

- 임야 2,820평 평당 7만원 (1필지)
- 임야 50,970평 평당 5만원 (총8필지)
- 임야 5,550평 평당 7만원 (2필지)
- 임야 7,380평 평당 5만원 (1필지)

투자상담 ☎ 019-641-2000

산행안내

산행안내 접수는 정확한 내용 게재를 위하여 팩스 및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므로 많은 양해 바랍니다. FAX : 227-9500, E-Mail : dd8111@hanmail.net

7월 8일(화)	2008 영주체육관 출범 (영주역, 비엔베레주자장 경유) ※나눔카페: http://cafe.daum.net/gwangju020	1,010-3008-4267, 011-634-2044
7월 12일(토)	▲남부산악회 강원도 개령산 7월(12일) 7시(9시) 출발	011-634-3172, 016-634-0659
7월 9일(수)	▲광주광역시의회 전신 순경 회관산 7월(9일) 8시 중수의 출발 ※나눔카페: http://cafe.daum.net/gwangju020	011-634-3172
7월 10일(목)	▲광주광역시의회 전신 순경 회관산 7월(10일) 8시 중수의 출발 ※나눔카페: http://cafe.daum.net/gwangju020	011-634-3172
7월 11일(금)	▲광주광역시의회 전신 순경 회관산 7월(11일) 8시 중수의 출발 ※나눔카페: http://cafe.daum.net/gwangju020	011-634-3172